

시판 담배서 '흡연유도' 성분 28종 검출

코코아·민트향 기관지 확장효과...연기 더 깊게 흡입 미국·EU 등 규제...복지부 "규제법안 국회통과 추진"

시중에 판매 중인 쉐넬담배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과일·민트향 등 '가향성분'이 최대 28개까지 검출됐다.

26일 질병관리본부가 공주대 신희상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국내 시판 쉐넬담배 60종 담뱃잎(연초) 내 첨가물에서 모두 가향성분이 확인됐다.

제품별로 가향성분은 최소 2개에서 28개까지 나왔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은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theobromine)으로 59종에서 검출됐다. 이어 바닐라향을 내는 바닐린(vanillin)이 49종에서, 민트(박하)향을 내는 이소멘

톤(isomenthone)·이소푸레골(isopulegol)·멘톨(menthol) 등이 46종 제품에서 한 가지 이상 나왔다.

담배 가향성분은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는데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9종 제품에서 검출된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 민트향을 내는 이소멘톤·이소푸레골·멘톨 등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담배연기를 더 깊게 흡입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흡연연습자 266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70.8%(1889명)가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 향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가향담배를 계속 사용할 확률이 일반담배로 시작하여 가향담배를 사용한 확률에 비해 10.4배 높아 흡연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가향담배인 캡슐담배의 필터 내 캡슐성분 분석을 통해 118종의 가향성분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내 시판 담배제품에 캡슐담배 뿐만 아니라 일반 쉐넬담배에도 다양한 가향성분이 첨가되어 있음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향성분 등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금지 권고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국가에선 가향성분 첨가를 규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법률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담배 제조사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가향물질 표시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위반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한 여수산단 5개 업체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5개 업체에서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허가 없이 대기배출시설(고체입상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조업한 화력발전업체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나머지 4개 업체(화력발전·아스콘제조·레이콘제조·기초유기화합물 제조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개선 명령을 내렸다.

4개 업체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고장·훼손 방지·비산방지 발생 억제장치 미흡·대기자가 측정 미이행·부식으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방지시설 방지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은홍 기자




고사리손으로 가꾸는 우리 농작물 '어린이 손으로 가꾸는 우리 농작물' 하나로 어린이 모내기 행사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앞재에서 어린이들이 농작물에 물을 주고 있다.

검찰 첫 성추행조사단, 안태근 등 7명 기소로 마무리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이 출범한 지 85일만이다.

조사단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령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날 불구속 기

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아울러 서 검사의 2차 피해와 관련해 인사자료 등을 반출·누설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이들은 2015년 당시 안 전 검사장과 함께 법무부에서 인사를 담당했다. 대검은 징계 혐의 사실을 살펴보고 추후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원칙과 기준을 위반해 서 검사를 부당하게 전보하도록 인사 담당 검사에게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또 성추

행 사건 은폐를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발령동기를 연결해 보고 있다. 반면 안 전 검사장은 인사권 남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검사 인사에 대한 최초의 수사라서 쟁점이 간단치 않았고 법리와 사실관계 등 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충분히 증거 자료를 모았고 간접적인 진술도 있다. 인사 변동 과정 등 증거를 통해 자신있게 (공소)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살인12건·강간 50건 저지른 전직 美경찰관

한 때 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신서했던 캘리포니아의 전직 경찰관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주택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살인범, 강간범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매체들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조세프 제임스 드앤젤로(72)를 붙잡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경찰 출신의 드앤젤로는 30여년 동안 미국에 빠졌던 연쇄살인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DNA증거에 의해 확정되어 전날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미 연방 수사관들과 검찰들이 새크라멘토 교외의 그의 자택에서 증거물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현지 신문들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연쇄살인범, 연쇄 강간범 등 여러가지 악명으로 불려왔던 그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에서 남부까지 10개 카운티에서 최소 12명을 살해하고 50명 이상을 강간하고도 교묘히 수사망을 피해다녀 공포를 더 했다.

복면을 하고 무장한 그는 아밤에 주택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잡히고 있는 13세~41세의 여성을 주로 강간 살해했다.

그는 일단 벤추라 카운티와 새크라멘토 시내에서 저지른 4건의 살인혐의로 체포됐다.

해군 출신의 그는 1973년부터 3년간 엑시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나중에 시에라 산 아래의 오번에 있는 고향 부근에서 근무했다. 이 곳에서 3년 근무하는 동안 오번에서는 살인 2건을 포함 50건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가 경찰관으로 근무 중에 한 짓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드앤젤로는 1979년 드럭 스토어에서 망치 한 개와 개 퇴치제 한 강통을 훔친 혐의로 파면당했다고 당시 오번 지역 신문은 보도했다. 그는 절도죄로 100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파면 당한 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시 1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연쇄살인범이 범행을 스스로 멈추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드앤젤로는 1986년 오렌지 카운티에서 강간살인을 저지른 이후로는 더 이상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경찰은 말하고 있다.

인도서 열차가 스쿨버스 받아 학생 12명 사망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26일 열차가 건널목을 지나던 스쿨버스를 치어 최소 12명의 어린 학생과 버스기사가 사망하고 또다른 학생 12명이 부상했다고 인도 경찰이 밝혔다.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주도 러크нау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쿠시나그르의 O. P. 싱 경찰국장은 이날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을 태운 사교 버스가 열차 진입 건널목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인도는 하루 2800만명이 열차를 이용하는 세계 최대의 철도 국가 중 하나로 그만큼 열차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무인 건널목도 수백 곳에 이른다. 철도 당국은 예산 부족으로 위험한 무인 건널목을 방지하고 있다.

日 철고기울고 선로 뒤틀려 전철 운행중단

25일 일본 오사카(大阪) 아미토(大和)강을 지나는 '아미토강 교량'이 기울고 철도가 뒤틀려, 해당 철교를 지나는 전철이 일부 구간에서 운행을 중단했다.

25일 마이니치(毎日)신문에 의하면, 이날 오전 7시45분경 긴테쓰(近?) 전철 미나미오사카선이 지나는 아미토강 교량의 교각 기울기에 이상을 알리는 센서가 작동했다.

긴테쓰 측은 이 교량의 철교 선로가 뒤틀리고 교량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미나미오사카선은 오전 8시부터 일부 구간 운전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사태로 인한 부상자 등은 없다.

긴테쓰에 따르면 '아미토강 교량'은 지난 1923년에 완공된 것으로, 총 길이는 197m에 달한다.

이 다리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교각 9개가 지탱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이날 초부터 보수공사 중이다.

기상청은 오사카 시내에 지난 24일 밤부터 많은 비가 내려 아미토 강물이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긴테쓰 담당자는 선로가 휘고 교각이 기울 원인에 대해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났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오사카에서는 지난해 10월 태풍 21호 발생했을 때, 남부의 오노 사토(男里)강의 난카이본선 다리 위 선로에서 뒤틀림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현장을 지난 보통전차가 일시 탈선해 승객 5명이 다쳤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머리는요...
자제치료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전화번호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